

朱耀翰の日本語詩

横山 景子*

I

韓国の近代文学の形成が、日本文学の影響を受けていることは、1910年の韓日合併と言う政治的運命の中に生まれていることから想像にかたくありません。そのような時代背景の中で、特に、1910年から1920年代の初期韓国文壇の中心は、当時日本に留学していた若い文学青年たちによって形成されました。しかし、植民地という時代背景の下で形成された韓国の近代文学は、主権喪失という矛盾と屈折を背負わなければなりません。韓国文学においては、近代文学の根本理念であった自我の確立という課題は、社会的な主権回復と言う課題に先だっては望める状態ではありませんでした。このような主権のない植民地文学に対する批判的な見方もありましたが、韓国の近代文学の起点は1919年三・一運動の前後の時期に求めるのが定説であり、この時期の作品や作家についての研究が盛んになされています。しかし当時の韓国の文学と日本の文学との関わりについて、韓国の国文学者の研究は十分ではなかったと私は考えました。たとえば、当時の日本文学や文壇に対する理解や評価が、創作活動にどのような影響を及ぼしたかということです。このような日本文学との影響関係を、具体的に究明することは韓国近代文学の新しい一面を見直すことになります。

そのような立場から私は以前、韓国の文芸誌、新聞や日本文学に関する資料、文献の調査などにより、朱耀翰の日本語詩27編を探し出しました。(1989年)。同時に当時の文学作品の翻訳、紹介、日本文壇の批評、書物の引用など多くの資料をみることができました。特に当時の日本詩人との影響関係を究明すること

* 영남대학교 사범대학 일어교육과 교수

により韓国の近代詩史にわずかな貢献をすることができたと信じます。

今回の発表は、韓国近代詩の形成者のひとり、朱耀翰と日本文学者川路柳虹とのめぐりあいと、その因縁によって創作された朱耀翰の日本詩、27編の資料を翻訳とともに提供し、朱耀翰研究の新しい糸口の為に役立てばと考えるものです。

II

朱耀翰(1900-29)は、1920年を前後して「創造」「霊台」に詩を発表しており、1924年には詩集「うつくしき曙」を出しています。そして1929年には李光洙・金東煥とともに「三人詩歌集」を、1930年には時調集「鳳仙花」を刊行しました。その間も言論界や実業家として多様な活動をし、その上晩年には政治家として活躍したことを考えると、朱耀翰の生涯において、詩人としての期間はわずか10年余りにすぎないことになります。しかし、韓国近代詩の形成において、朱耀翰の詩作活動が占めた位置は決して見逃せないものといえます。

韓国の近代詩史においての朱耀翰の評価は、まず多様な詩形式を生み出したこと、もう一つは、黄錫禹、金億など、当時の詩人たちに共通した西欧の象徴詩の模倣にとどまらず、郷土的、民族的情緒を歌い上げ、抒情詩人としての位置を得ることができたといえます。しかし、朱耀翰は韓国語で詩を発表する前に、すでに17歳にして日本語で活発な詩作を続けました。しかしながら、朱耀翰研究の日本においての活動については、ほぼ空白のままでした。本人は1989年に朱耀翰の日本詩を発見することにより、その空白を埋めることができました。つまり、朱耀翰は「創造」などに韓国語で近代詩を発表する前に、日本において日本語の詩を発表しており、若い詩人として文壇に登場していました。

『自由文学』創刊号の「創作時代の文壇」の中で朱耀翰は日本語の訳詩集の作風をまねて、日本詩を作り、投稿したことが因縁となって、川路柳虹と言う詩人と親しくなったことを述べています。また、同じ記事の中で、柳虹は画家であり、美術批評家であり、その上、フランス語のできる詩人であったと述べていますが、この美術家であり、近代詩人であった川路柳虹が、当時、中学生であった朱耀翰に与え

た影響を探ることにより、朱耀翰の近代詩人としての要素をより深く把握することができると考えます。

III.

川路柳虹は、1888年に東京に生まれ、京都美術工業学校を卒業してから、美術活動をするとともに、在学中から詩を作り始めていました。そして明治37年から河井醉茗が選者として活躍していた『文庫』に投稿を始めていました。この雑誌は評論、紀行、散文、詩において当時の文壇に大きく寄与し、特に詩の業績に対する評価は高いものでした。河井醉茗はその後、『詩人』を創刊しますが、川路柳虹は1909年（明治40年）9月の『詩人』誌上に日本詩壇最初の口語自由詩「塵溜」を発表し、日本の近代詩壇に衝撃を与えました。この詩が注目されたのは、表現において単純な口語で書いた自由詩形態であったことと、また一つは、人間生活の現実的なものに題材を求め、醜悪な現実の実体を詩に取り入れたことであります。これは明治末期の自然主義と、世紀末的な退廃詩風の影響であるともいえますが、口語自由詩の主唱者であった川路柳虹の試験的な作品であったことが注目をうけました。技巧上では体言の羅列や、擬声語なども使用され、印象派的な技巧も見えますが、新しい題材面と詩形において新時代の精神を反映しました。朱耀翰の絵画的、印象的な詩の傾向は、この当時、川路柳虹に指導を受けていたことを考えあわせるとうなずけるものがあります。

川路柳虹自身はその後、詩集『未来』を発行し、大正10年には『日本詩人』を創刊しています。一方、年間詩集『日本詩集』において新人詩人の育成に全力を尽くしました。その間、大正7年に曙光社を創立し、詩人の教育を目的とした雑誌『伴奏』『現代詩歌』『炬火』などを連続発行し、平戸廉吉、萩原恭次郎、野村四郎などを配出しました。この同人の中に朱耀翰もいました。その後も柳虹は詩集のほかには訳詩集、評論集『作詩の新研究』などを出版し、そのほかにも美術評論、随筆など多角的に活動するという文人でした。

” 画家であり詩人であり、フランス語のできるフランス文学系統の文人で

あった。

従って私は、中学を卒業し、高等学校に入学するときに、フランス文学科を志望したことであります。”

上の文章のように、朱耀翰は、川路柳虹に対して、詩人としてばかりでなく、彼の語学的な能力を深く評価して、彼の人間的な面からも影響されたことを示しております。事実、朱耀翰は柳虹が情熱を傾けていた詩雑誌、『現代詩歌』の同人として、実に多様な日本語詩習作を通し、柳虹や同人仲間の評論や指導を受けていたことが知られます。柳虹は詩集『波』によって芸術院賞を受けるなど現代詩と、現代美術の新しい展開に大きく寄与しました。

しかし、彼の活躍の中で、もっともおおきな功績の一つは、口語自由詩の発表でありました。彼の口語自由詩の運動がどのようにして生まれたかを、日本の近代時の概略から探ってみると次の如くです。

当時は島崎藤村の抒情詩と蒲原有明の象徴詩を経て、明治40年から大正2年くらいまでの数年間は自然主義の傾向を表した口語自由詩運動が起きていました。また一方では、三木露風、北原白秋をはじめとする象徴詩の影響を受けた、文語自由詩の華麗な開花により、近代詩の基盤が拡大された時期であります。

柳虹が口語自由詩を発表したのは、明治40ですから、文語定形詩と文語自由詩に続いて口語で詩作を試みようとしたことは、時代的必然であったとみることができます。散文では、近代的な精神が主張された自然主義思潮が、伝統の破壊や旧形式の破壊、露骨な実感尊重主義が主張され、これが近代詩の世界にも大きな影響を及ぼしました。詩形においても定形の破壊と、口語の使用、また、主題と素材の取り扱いにおいて、即物性と生活実感の存在などがその現象として求められました。これが日本詩表現の可能性を拡大したと考えられます。このような時代性の中で、川路柳虹が試みた最初の口語自由詩「塵溜」は大きな意味をもちました。これらは以前の詩にみられる花鳥風月的な詩観とははっきり異なっており、この詩は当時の一つの信号として、青年詩人たちに衝撃をあたえました。

柳虹は「路傍の花」の序文で「今般の新運動は沈み濁ったその瓶の水を覆して、

新しい水に変えたことであった。．．． 2．3 年以來の文壇が著しく自意識的色調を帯びてきたと同じく、詩壇もまた自ら自覚の域に達した。私が口語の形式を借りた詩を作ろうと思った動機も詮ずればここにある」と言い、口語詩に対する態度を明らかにしています。

詩人たちはこの激しい転換期の後、多様で自由なスタイルの詩を書くようになり、個性を心ゆくまで発揮するようになりました。このような近代詩成立過程の激動期にあって、朱耀翰も『現代詩歌』『文章世界』などを通して時代が要求する口語自由詩運動に直接ふれていたと考えられます。それらは朱耀翰にとっては、日本の近代詩の発展過程で大きな文学体験を積むことになりました。

柳虹は明治後期から大正の詩壇において、時代が要求する詩を試みながらも、同人詩を通して、詩を愛する新人の育成に力を傾けた詩人でありました。矢野峰人はこのような柳虹の人物と作品について「柳虹は新しい方向に目を開き、思潮の先頭にたつて、努力した詩人であった。彼は一時も一カ所に留まったこともなく、取材面においてもいつも新しい物を探求しようとした。」と言っています。朱耀翰は柳虹のこのような多様な詩作態度、及び時代に先駆けていく新人詩人を養成する態度に接し、母国の詩壇に寄与することを熱望したであろうと予測されます。朱耀翰は1919年に韓国の新文芸誌『創造』創刊号の後記に“마음이 적적하신 이는 오십시오 .우리는 그 의와 함께 올어드리겠습니다. 가슴 아프신 이는 오십시오. 우리는 그이와 가치 속태우고 ,가치 예를 쓰고자 합니다.”のように記し、詩人としての自信感と文芸誌を通して、何かを導こうとするリーダーシップを示しています。

川路柳虹が成し遂げた詩人としての行為と朱耀翰の関係をまとめてみると、朱耀翰は1917年の『現代詩歌』投稿期間を通して、1．詩作を通して、多人の文芸的指導を受けたこと。2．柳虹の口語自由詩活動を見つめてきたこと。3．柳虹の多様な詩作態度を体験していること。4．取材面においても常に新しい物を追求する詩人の態度にふれてきたこと等を、青少年期の鋭敏な感覚で吸収していたことが推定されます。このように考えるとき、『創造』以後、韓国文壇で活躍した朱耀翰の詩人としての出発とその詩精神は、日本の近代詩壇での体験によって大きな影響を受けていることは見逃せません。

<주요한의 일본어시(한국어역)>

I

한국근대문학의 형성이, 일본문학의 영향을 받고있다고 하는 것은, 한국의 근대문학이 1910년의 한일합병이라는 정치적인 운명 속에서 태어났다고 하는 것으로도 상상하기에 어렵지 않다. 그러한 시대배경 속에서, 특히, 1910년대부터 1920년대의 초기한국문단의 중심은, 그 당시 일본에서 유학하고 있던 젊은 문학청년들에 의해서 형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식민지라고하는 시대배경하에서 형성된 한국 근대문학은, 주권상실이라는 모순과 좌절을 겪어지지 않으면 안되었다. 한국문학에 있어서는, 근대문학의 근본이념인 자아의 확립이라는 과제는, 사회적인 주권회복이라는 과제에 선행해서는 바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주권이 없는 식민지문학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도 있었습니다만, 한국의 근대문학의 기점은 1919년 3·1운동의 전후의 시기이라는 것이 정설이고, 이 시기의 작품이나 작가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한국문학과 일본문학과의 관련에 대해서, 한국의 국문학자의 연구는 충분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당시의 일본문학이나 문단에 대한 이해나 평가가, 창조활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본문학과 의 영향관계를 구체적으로 규명하는 일은 한국근대문학의 새로운 일면을 바로 보는 일이 됩니다.

그러한 입장에 서서 저는 전에, 한국의 문예지, 신문이나 일본문학에 관한 자료와 문헌 조사 등을 통하여, 주요한의 일본어시 27편을 찾아냈습니다.(1989년) 동시에 당시의 문학작품의 번역, 소개, 일본문단의 비평, 출판물의 인용 등의 많은 자료를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당시의 일본시인과의 영향관계를 규명함으로써 한국의 근대시사에 조금이나마 공헌을 할 수 있었다고 믿고있습니다.

이번 발표는, 한국근대시의 형성자의 한사람인 주요한과 일본인 문학자 카와지류우코(川路柳*)와의 만남과, 그 인연에 의해서 창작된 주요한의 일본시 27편의 자료를 번역과 함께 제공하여, 주요한 연구의 새로운 실마리를 얻는 데에 도

움이 되었으면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II

주요한(1900-79)은, 1920년을 전후해서, 「創造」 「靈台」에 시를 발표하고 있고, 1924년에는 시집 「아름다운 새벽」을 출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29년에는 이광수, 김동환과 함께 「三人詩歌集」을, 1930년에는 시조집 「봉선화」를 간행했습니다. 그 동안도 언론계나 실업가로서 다양한 활동을 하여, 게다가 만년에는 정치가로서 활동한 사실을 본다면, 주요한의 생애에 있어서, 시인으로서의 기간은 겨우 10년 정도였다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금대시의 형성에 있어서, 주요한의 시작활동이 차지한 위치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말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근대시사에 있어서의 주요한의 평가는, 우선 다양한 시형식을 만들어 낸 것이고, 또 하나는 황 석우, 김 역등 당시의 시인들이 서구의 상징시의 모방에 그친 데 반하여, 주요한은 모방에 그치지 않고, 향토적, 서정적인 정서를 노래하여, 서정시인으로서의 위치를 얻을 수 있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요한은 한국어로 시를 발표하기 전에, 이미 17세의 나이에 일본어로 활발한 시작활동을 계속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에 있어서의 주요한에 대한 연구는 거의 공백인 채로 남아있습니다. 본인은 1989년에 주요한의 일본시를 발간함에 따라, 그 공백을 메울 수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주요한은 「창조」 등에 한국어로 근대시를 발표하기 전에, 일본에서 일본어로 된 시를 발표하고 있고, 젊은 시인으로서 문단에 등장하고 있었습니다.

* 「자유문학」 창간호의 「창작시대의 문단」 중에서 주요한은 일본어의 번역시집의 작품을 모방하여, 일본시를 만들어 투고한 것이 인연이 되어, 카와지 류우코라는 시인과 친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기사 중에, 류우코는 화가이기도 하고, 미술비평가이기도 하고, 게다가 프랑스어를 할 수 있는 시인이었다고 쓰고 있습니다만, 이 미술가이기도 하고 근대시인이었던 카와지 류우코가 그 당시 중학생이었던 주요한에게 끼친 영향을 연구해 봄으로서, 주요한의 근대시인으로서의 요소를 보다 깊이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III.

카와지 류우코는, 1888년에 도쿄에서 태어나, 교토미술공업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미술활동을함과 동시에, 재학 중부터 시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메이지37년부터 카와이 스이에가 심사위원으로서 활약하고 있던 「문고」에 투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잡지의 평론, 기행, 산문, 시에 있어서 당시의 문단에 크게 기여하였고, 특히 시에 있어서의 그의 업적에 대한 평가는 높았었습니다. 카와이 스이에에는 그 후 「시인」을 창간하였습시다만, 카와지 류우코는 1909(明治40년) 9월 「시인」에 일본시단에서 최초의 구어자유시 「塵溜」를 발표하여, 일본의 근대시단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 시가 주목을 받은 것은, 표현에 있어서 단순한 구어로 쓴 자유시의 형태였다는 것과, 또 하나는 인간생활의 현실적인 것에서 제재를 찾아서, 추악한 현실의 실체를 시로 만들어 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메이지 말기의 자연주의와, 세기말적인 퇴폐시풍의 영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만, 구어자유시의 주창자인 카와지 류우코의 시험적인 작품이었다는 사실에서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교상으로는, 체언의 나열이나, 의성어 등도 사용되어, 인상파적인 기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새로운 제재면과 시형에 있어서 신시대의 정신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주요한의 회화적, 인상적인 시의 경향은 그 당시에 카와지 류우코에게 지도를 받았던 것을 상기해 본다면, 수궁이 가는 면도 있습니다.

카와지 류우코 자신은 그 후, 시집 「미래」를 간행하여, 타이쇼 10년에는 「일본시인」을 창간하고 있습니다. 한편, 연간시집 「일본시집」에 있어서 신인 시인의 육성에 전력을 쏟고있었습니다. 그 동안, 타이쇼7년에 서광사를 창립하여, 시인의 육성을 목적으로 한 잡지 「반주」, 「現代詩歌」, 「炬火」등을 연속 간행하여, 히라토 켄키찌, 하기와라쿄오지로, 노무라시로우등을 배출하였습니다. 이 동안 중에서 주요한도 있었습니다. 그 후에도 류우코는 시집 외에 번역시집, 평론집 「작사의 신연구」 등을 출판하고, 그 외에도 미술평론, 수필등 다각적으로 활동한 문인이었습니다.

화가이기도 하고, 문인이기도하고, 프랑스어를 할 수 있는 프랑스문학계통의 문인이었다. 그래서 나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에 입학 할 때에, 프랑스문학을 지원한 것이었습니다.

위의 문장에서처럼, 주요한은 카와지 류우코에대해서, 시인으로서 뿐만이 아니라, 그의 어학적인 능력을 높이 평가하고, 그의 인간적인 면에서도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실 주요한은 류우코가 정열을 쏟고있던 「현대시가」의 동인으로서, 실제로 다양한 일본어시습작을 통하여, 류우코나 동인이었던 동료들의 평가나 지도를 받고 있었던 사실이 알려져 있습니다. 류우코는 시집 「파도」에 의해 예술원상을 받는 등 현대시와, 현대미술의 새로운 전개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활동 중에서, 가장 큰 업적중의 하나는, 구어자유시의 발표였습니다. 그의 구어자유시운동이 어떻게 탄생하였는가를, 일본근대시의 개략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당시에는 시마자키토오송의 서정시와 칸바루 아리아케의 상징시를 지나, 메이지40년부터 타이쇼2년 무렵까지의 수년간은 자연주의의 경향을 표명한 구어자유시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미키 로우후, 키타하라 하쿠슈등을 비롯한 상징시의 영향을 받은 문어자유시의 화려한 개화에 의한 근대시의 기반이 확대된 시기이었습니다.

류우코가 구어자유시를 발표한 것은 명치40년이므로, 문어정형시와 문어자유시의 뒤를 이어 구어로 시를 만들어 보려고 한 것은, 시대적인 필연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산문에서는, 근대적인 정신이 주장되는 자연주의사조가, 전통의 파괴나, 구형식의 파괴, 노골적인 실감존중주의가 주장되어, 이것이 근대시의 세계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시의 형식에 있어서도 정형의 파괴와, 구어의 사용, 그리고 주제와 소재의 취급에 있어서도, 即物性和 생활실감의 존재 등이 그 현상으로서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이 일본시표현의 가능성을 확대했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시대성 속에서, 카와지 류우코가 시도한 최초의 구어자유시 「塵溜」는 커다란 의미를 가졌습니다. 이들은 이전의 시에서 볼 수 있는 화조풍월적인 시관과는 확실히 다르고, 이 시는 당시의 하나의 신호로서, 청년시인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시인들은 이 급격한 전환기후에, 다양하고 자유로운 스타일의 시를 쓸 수 있게 되고, 개성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근대시 성립과정의 격동기에, 주요한도 「현대시가」 「문장세계」 등을 통하여 시대가 요구하는 구어자유시운동에 직접 관여하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주요한에게 있어서는, 일본근대시의 발전과정에서 커다란 문학체험을 쌓는 일이 되었습니다.

류우코는 메이지 후기부터 타이쇼의 문단이 있어서, 시대가 요구하는 시를 시도하면서, 한편으로는 동인시를 통하여, 시를 사랑하는 신인의 육성에도 힘을 쓴 시인이었습니다. 야노*는 이러한 인품과 작품에 대하여 「류우코는 새로운 방면으로 눈을 열어, 사조의 선두에 서서 노력한 시인이었다. 그는 한시도 한곳에 머무르는 일없이, 취재면에 있어서도 언제나 새로운 것을 탐구하려고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요한은 류우코의 이러한 다양한 시작태도 및 시대에 앞서가는 신인시인을 양성하는 태도를 보고, 모국의 시단에 기여하려는 열망을 가졌으리라 생각됩니다. 주요한은 1919년에 한국의 신문예지 「창조」 창간호 후기에 “마음이 적적하신 이는 오십시오. 우리는 그의와 함께 물어드리겠습니다. 가슴 아픈 신 이는 오십시오. 우리는 그의와 가치 속태우고, 가치 애를 쓰고저 합니다.(원문의 표기)와 같이 써서, 시인으로서의 자신감과 문예지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이끌어가려고하는 리더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카와지 류우코의 시인으로서의 행위와 주요한과의 관계를 정리해 보면, 주요한은 1917년 「현대시가」 투고기간을 통해서, 1)시작을 통해서 커다란 문예적인 지도를 받은 것. 2)류우코의 구어자유시활동을 보아왔던 것. 3)류우코의 다양한 시작태도를 체험하고 있는 것. 4)취재면에 있어서 항상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시인의 태도에 접해 왔던 것 등을 청소년기의 예민한 감각으로 흡수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창조」 이후, 한국문단에서 활약한 주요한의 시인으로서의 출발과 그 시정신은, 일본의 근대시단에서의 체험에 의해서 커다란 영향을 받고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IV

1. 주요한의 생애

주요한은 1900년 10월 14일 평양에서 태어나, 숭덕국민학교 6학년 때에, 일본으로 건너왔습니다. 1년간 일본어를 배운 후에 1913년 메이지학원 중학부에 입학했습니다. 당시 메이지학원에는 조선으로부터 건너간 여러 사람들이 유학하고 있었습니다. 소설가 이광수는 주요한이 입학하기 3년 전에 졸업하였고, 주요한과 같은 시기에 김동인이 있습니다.

주요한은 중학교 4학년 때부터, 메이지학원의 「백금학보」의 편집일을 도왔고, 5학년 때에는 편집위원이 되었습니다. 그는 그 당시 급우들에게 “수재 주요한”, “예술가 주요한” 등으로 불리고 있는 것이 문장 중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는 중학교 시절에 「백금학보」의 편집에 참여하는 한편, 「문예잡지」에 시나 단가 등을 투고하여 가작으로 뽑히기도 하고, 카와지 류우코에게는 시의 재능을 인정받아, 일본어로 활발한 시작을 계속하였습니다.

카와지 류우코와 관련해서, 주요한의 일본에서의 시작을 조사해 보면, 「반주」의 제2호에 실고 있는 「お春」이 류우코에게 최초로 인정받은 작품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에 이어, 「반주」에는 제3호에 2편, 제4호에 4편이 실려 있습니다. 카와지를 중심으로 한 서광사의 활동은 계간지 「반주」에서 월간지 「현대시가」로 바뀌어, 보다 활기를 보이게 되었습니다. 「현대시가」는 1918년 2월부터 1921년 8월까지 간행되어, 전 42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한은 「현대시가」에 창간호에서부터 제2권 제2호까지 20편의 시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한국의 시조를 번역하여 소개(제2권 제1호)하기도 하고, 시평을 담당하기도 (제1권 제4호-제2권 제5호) 하고 있습니다.

「반주」와 「현대시가」를 통하여 주요한은, 1917년부터 약 2년 반 동안 일본어로 시작이나, 시평을 계속하였습니다만, 그 동안 주요한의 「卓上の静物」가 게재되었던 잡지에서, 가와지는

--- 주요한군의 시도 실로 독특한 맛이 있다. 그는 메이지학원에 재학중

인 조선국인이다. 우리의 친한 이웃나라의 청년으로, 이 정도의 시를 쓸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것이다. 주군은 장래에 조선국의 시단을 부흥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나는, 그의 부단한 노력을 매우 멋지다고 생각하고 있다.

여기에서 이국의 한 청년의 시적인 재능이 장래에 큰 결실을 얻으리라고 기대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1918년 10월, 주요한은 「현대시가」 제1호 9월호에 「미광」과 「새벽」이라는 2작품을 발표하여, 이것으로 시인으로서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 주요한군은 우리 이웃나라 조선국의 가장 젊은 영제너레이션을 대표하는 시인의 한 사람이라고 말해도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모국어이상으로 유창한 이들 시구의 구사만을 보더라도 확실히 흥미 있는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열의와 민감함과, 豊醇한 정조도 실로 얻기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번의 평가에 비교해서 이 추천은 주요한을 한사람의 시인으로서 평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 일본어시 작품의 경향

일본시단에서 발표된 주요한의 일어시작품은 지금까지 밝혀진 27편 가운데서는 그 시작품의 경향을 살펴보면 시형 식에서는 자유시가 19편, 산문시가 1편, 소곡(단시)이 7편이 됩니다.

1917년 『반주』에 발표된 주요한의 시는 7편중에서 5편이 소곡입니다. 시어에 있어서는 최초의 시 「오하루」를 비롯해서 『반주』에 게재된 7편의 시는 모두 일어의 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18년 8월에 발표했던 소곡 중 「별」도 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소곡임으로 해서 시의 내용에 무게를 부여하기 위해 의식적으로 문어를 사용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어 구어자유시는 주요한이 『현대시가』에서 처음으로 습작했다고 볼 수 있

습니다. 그 후 완전한 일어 구어자유시를 14편이나 습작하면서, 그 사이 1917년 2월에 한국어시 「홀로 안저서」, 1917년 12월에 「푸른 하늘 아래」의 2편, 1918년에 한글 자유시 「나 얘기」의 9편도 창작했습니다. 그 후에 1918년 10월에 일어 구어자유시 「미광」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 무렵에 주요한은 일어시와 한글시를 병행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일어시는 주제와 내용에서 작품의 경향을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습니다.

- 1) 향수적인 서정시
- 2) 저항적인 상징시
- 3) 감각적인 상징시와 산문시

그의 서정적인 요소는 주요한이 어린 나이에 고국을 떠나 일본에 와 있었으므로 어린 시절과 자신이 태어나 자란 곳이 잊혀지지 않고 그리움으로 남아 있었기 때문으로 보이며, 상징적인 요소는 주요한이 우에다*의 『해조음』, 나가이 카후우의 『산호집』 등의 번역시집을 통해서 불란서 상징파 시인의 영향을 받았던 사실과 일본 체류기간 중에, 많은 상징시를 접할 수 있었다는 사실로 쉽게 설명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들 주요한의 일어시의 경향을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하여 위에서 분류한 것을 기준으로 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V

다음에 분류한 작품에서 대표적인 일본어시를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1) 향수적인 서정시

주요한의 향수적인 서정성을 담은 일본어작품은 주로 그의 작품 중에서 초기의 작품들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작품은 「오하루」(춘아), 「잠 자는 아기」, 「고향」 등이 있다. 이밖에도 낭만적 서정성을 담은 작품 「욕구」, 「포도꽃」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춘아>

설국에 살고 있는 남자였다네
 낙엽송 깊은 수목을 살며시 비취는
 황갈색 겨울 날에, 얇게 눈은 깔리고 —
 베짜는 남자는 노래 부르네, 눈물의 노래.

황금십자의 유채꽃 흐트러져 필 무렵
 봄비가 꿈에 음물로 찾아 오는 날 —
 그녀는 고원 외딴집에서 태어났다네.
 <춘아야> 하며 아버지는 아침마다 저녁마다 너희 이름 부른다.

그렇게 오고간 봄은 어느덧 다섯 번
 알수 없는 운명이 어미니를 빼앗아 갔다네.
 그림자 쓸쓸한 가을날의 내음새에
 베짜는 남자는 노래부르네, 눈물의 노래.

단 한 사람 아버지만이 너희 벗이네
 고원의 큰 바위에 두 사람 일어나고 잠자고 —
 딸의 손 꼬옥 잡고 — 딸 때문에
 <춘아야>하며 아버지는 아침마다 저녁마다 너희 이름 부른다.

산기슭 언덕에 저녁 어스름 밀어 오고
 암사슴 노래는 어울려 간다
 아아 춘아도 여자였어라, 그 꿇는 피 —
 불타며 소용돌이쳐 흘러 간다.

갈구하는 마음은 불타고 있지만
 암사슴의 울음 소리는 멎을 날 없네.
 아버지 생각으로 타는 가슴 달래고

배짜는 낭자는 노래부르네, 눈물의 노래.

2) 저항적인 상징시

주요한의 일어서 중에는 낭만적인 민족의식의 표출인 저항시를 몇 편 볼 수 있습니다. 청소년다운 열정과 신선한 정의감에 불타는 낭만적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저항적인 시입니다. 이들을 내용 면에서 구분하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식민지 치하에 있었던 민족의 억압에 대한 저항시군이며, 또 하나는 현실의 압박과 불안에 대한 민족의식이 내포된 감각적인 상징시군입니다. 전자에 속하는 작품은 「낮과 밤의 기도(2)」, 「낮과 밤의 기도(4)」, 「폭풍우(낮과 밤의 기도(5))」, 「암흑」 등이 있으며, 후자에 속하는 것으로는 「동트는 아침」, 「밤 잠잘 때」, 「일조의 유혹」 등이 있습니다.

3·1운동은, 1919년 3월1일 한국민족이 일치단결 하여 일제에 대한 조직적 반항의 표출인 독립만세시위운동이었습니다. 주요한은 독립운동의 1년 전인 1918년에 민족의 분노를 시로 나타내었습니다. 청년 주요한의 민족의식이 저항시로 나타난 것이 이 시군들입니다.

<낮과 밤의 기도(2)>

무서운 침입의 골목

불가사의의 비밀로 넘친 그 절규 소리

내 마음에 어둠의 밤이 숨어서 온다.

그리고 그 검은 캡이 마음속을 흐리게 한다.

말할 수 없는 슬픔의 달밤인가

잃어버린 은하가 슬프게 흐느껴 운다면

구름 위에서 마음 깊은 곳에서 흐느껴 운다면.

푸른빛의 비가 내린다.

하나하나 깔려 쌓여진 마음의 우수여

가라앉은 달빛의 노래는 달아나 없고

납빛으로 된 장님의 비가 넓은 세계에 몰아치고 있다.
그리고 조그마한 틈으로부터 삶의 큰 파도 그 길고 긴 음률이 돌리는 것 같다.

아아 나의 증오스럽고 또 사랑스런 삶
혈기 위해 쌓고 쌓기 위해 허는 영원한 크나큰 파도
모든 것을 삼키며 모든 것을 삼켜도 차지않아 광란한다.
그리고 더욱 가난한 내 가슴에까지 넘쳐 오느뇨.

오오 피하기 어려운 근심스런 인생을
강한 열망위에 다시 살아나게 하라.
우리네의 경종은 어디로 갔나 붉은 깃발은?
나는 이렇게 외치리라 <멋는 일 없이 흘러가거라, 부름받고 일어선 의지여>라고,
고,

들으라 피로에 지친 혼의 소유자는 —
항상 쉽게 생각하는 겸손함인가 끊임없이 감수는 괴로움들이
<생활>의 눈물에 비치는 빛이다. 도정이다.
노랗게 번지는 냇가의 물안개같은 마음마저 아아 된다, 된다, 된다.

격렬한 회전이여! 질주여 모두 어떻게 되어 가는가.
패한 전선에 다시 서 본다.
오로지 열정만이 우리네의 근심 걱정을 씻을 것이리니,
아아 오직 열정뿐만을 지쳐버린 혼이여! 기다려 보렴.

그래서 모든 것으로부터 도망해 나오는 것의 귀함이요
비로부터 밤으로부터 맹목의 두려움으로부터 — 그것은 괴상한 이지의 꿈에 불과하다
한결같이 지켜라 샘을
철철 넘치는 마음을 길러 잊지말아라.

계절은 바뀔지라도 너희 마음 항상 흔들려 움직일 때
 너희 기도는 이와 같음을 바라나니
 <항상 사랑하라, 기뻐하라, 춤춰라, 수용하라, 멋지말고 흘러라>고
 그렇다면 이상한 큰 파도의 음물로 영원토록 몽글어질 걱정이 없게됨을 위함이
 니라.

3. 감각적인 상징시와 산문시

주요한의 일본어시에는 낭만성을 띤 감각적인 시가 많다는 것이 하나의 특징입니다. 10대라는 젊은 연령인데다,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에, 당시 유행하였던 일본문단의 상징주의, 민중시운동이나 구어자유시운동의 자극 속에서, 주요한은 다양한 시습작에 열중한 듯이 보입니다. 그리하여, 창작시의 내용과 형식이 매우 다양합니다만,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것이 감각적인 상징시입니다. 이들을 발표 순서대로 보면, 「*」, 「아침」, 「탁상의 정물」 「여자」(여인), 「*」(*), 「7월의 밤」, 「*」(여명), 「식탁」, 「월광」 등이 대표적인 것입니다. 이들 시는 대개 상징시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만, 이들을 세분하여 본다면, 감각적인 상징시, 회화적인 상징시, 낭만성을 띤 환상적인 상징시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감각적인 시의 대표로서 집중적으로 창작된 시기의 「*」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의 여인>

푸른 잎새에 아침바람이 눈부시게 스치고(밤새워 노래불러 지새운 지금)
 오수의 하얀 여인
 오오 오수의 여인의 건강함.

처녀답게 향기로이
 밤불 같은 불은 넘쳐나고
 콧대부터 입술로
 은은해 풍기는 요염함.
 눈초리 가는 주름으로 떨어져서

쫓아버려도 쫓아버려도
재빠르게 눈꺼풀을 찌르는 벌(蜂)의 잠…
사랑스런 코는 파도치고
빈틈없는 선의 아름다움.
오수의 여인의 건강함.

바람이 가볍게 어깨를 두드리면
싱싱하게 깨어나는 흑요석의 눈동자에
사람 부르는 음성의 시원스러움.
또 다시 빠져드는 꿈길의 쾌감
흐트러지지 않는 선의 아름다움
오수의 여인의 건강함.

이럴 때
잠은 춤춘다 — 하이얀 춤
고양이 털같은 하이얀 춤을.
화사한 손가락 사이와 보드라운 손수건 깃 자락에도.

이 마지막 연에서 전체적인 화려한 아름다움이 묘사되어 서구의 인상파 그림과 같은 회화적인 감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주요한의 스케치 풍의 감각적인 상징시는 『현대시가』 11호에 발표된 「월광」입니다.

<일본시집지에 발표된 주요한의 초기일어창작시> (1989년)

	원제목	번역제목	발표지	창작연대
1	お春	춘아	伴奏, 2輯(新春の巻)	大6(1916)
2	冬	겨울	伴奏, 3輯(春の巻)	大6(1916)
3	欲求	욕구	伴奏, 3輯(春の巻)	大6(1916)
4	葡萄の花	포도꽃	伴奏, 4輯(夏の巻)	大6(1916)
5	眠れる*児	잠든 아기	伴奏, 4輯(夏の巻)	大6(1916)
6	ふるさと	고향	伴奏, 4輯(夏の巻)	大6(1916)
7	失なはれ者	잃어버린 것	伴奏, 4輯(夏の巻)	大6(1916)
8	昼と夜の祈祷(2)	낮과 밤의 기도(2)	現代詩歌, 1号(2月)	大7(1917)
9	春立つ日の歌	봄이 오는 날의 기도	現代詩歌, 2号(3月)	大7(1917)
10	あくる朝	동트는 아침	現代詩歌, 3号(4月)	大7(1917)
11	朝	아침	現代詩歌, 3号(4月)	大7(1917)
12	夜寝る時	밤 잠잘 때	現代詩歌, 4号(5月)	大7(1917)
13	昼と夜の祈祷(4)	낮과 밤의 기도(4)	現代詩歌, 4号(5月)	大7(1917)
14	夕暮の誘惑	일몰의 유혹	現代詩歌, 5号(6月)	大7(1917)
15	卓上の静物	탁상의 정물	現代詩歌, 5号(6月)	大7(1917)
16	女	여인	現代詩歌, 5号(6月)	大7(1917)
17	まどろむ女	오수의 여인	現代詩歌, 6号(7月)	大7(1917)
18	*(昼と夜の祈祷(5))	폭풍우	現代詩歌, 7号(8月)	大7(1917)
19	自画像	자화상	現代詩歌, 7号(8月)	大7(1917)
20	星	별	現代詩歌, 7号(8月)	大7(1917)
21	七月の夜	칠월의 밤	現代詩歌, 8号(9月)	大7(1917)
22	微光	미광	現代詩歌, 9号(10月)	大7(1917)
23	あけぼの	여명	現代詩歌, 9号(10月)	大7(1917)
24	暗黒	암흑	現代詩歌, 10号(11月)	大7(1917)
25	食卓	식탁	現代詩歌, 11号(12月)	大7(1917)
26	月光	월광	現代詩歌, 11号(12月)	大7(1917)
27	霧と太陽	안개와 태양	現代詩歌, 2卷2号(2月)	大8(1918)

상기의 일본어시는 본인의 「주요한의 일본어 작품에 관한 연구」(한국어, 경북대학대학원박사학위논문 1989,6)의 자료편 중에 일본어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 후, 1993년에 「五月雨の朝」「狂人」「地の愛」의 3편이, 당시 오차노미즈 여자대학대학원 재학중이었던 申 銀珠씨에 의해서 발견되어, 주요한의 일본어創

作시는 현재 30편으로 되어 있습니다.(본지에는 한국어번역만을 게재합니다)

附錄：한국어 번역시(27편)

(1) <춘아>

설국에 살고 있는 남자였다네.
낙엽송 깊은 수목을 살며시 비취는
황갈색 겨울 날에, 얇게 눈은 깔리고 —
배짜는 남자는 노래 부르네, 눈물의 노래.

황금십자의 유채꽃 흐트러지게 필 무렵,
봄비가 꿈에 음물로 찾아 오는 날 —
그녀는 고원 외판 집에서 태어났다네.
<춘아야> 하며 아버지는 아침마다 저녁마다 너의 이름 부른다.

그렇게 오고간 봄은, 어느덧 다섯 번
알 수 없는 운명이 어머니를 빼앗아 갔다네,
그림자 쓸쓸한 가을날의 내음새에
배짜는 남자는 노래 부르네, 눈물의 노래.

단 한 사람 아버지만이 너의 벗이네
고원의 큰 바위에 두 사람 일어나고 잠자고 —
딸의 손 꼬옥 잡고 — 딸 때문에
<춘아야>하며 아버지는 아침마다 저녁마다 너의 이름 부른다.

산기슭 언덕에 저녁 어스름 밀려 오고
암사슴 노래는 어울려 간다.
아아 춘아도 여자였어라, 그 끓는 피 —
불타며, 소용돌이쳐 흘러 간다.

갈구하는 마음은 불타고 있지만
 암사슴의 울음 소리는 멧을 날 없네.
 아버지를 생각하면 타는 가슴 달래고
 배짜는 낭자는 노래부르네, 눈물의 노래.

(原詩 「朱耀翰의 H語詩作品에 関한 研究」 1989年博士論文, 付録參考
 資料 p.12参照) 以下 參考資料의 page만 提示함)

(2) <겨울>

겨울 날의 나무 가지에
 바람도 없거니와
 노려보는 마음의
 하늘은 적막
 무엇엔가로 집 먹은 그 가슴
 끊임 없이 겁에 질려서
 가느다란 숨을 토한다.

흙은 땅심을 동댕이 치고,
 여윈 가슴, 활짝 열어 찢히네.
 뼈에서 뼈로 전해지는 것 걱정스리 앓는 소리는
 말라붙은 풀들의 호소(呼訴)하는 소리와
 어머니인 흙의 흐느껴 우는 소리가 된다.

이윽고 연옥색
 여명의 꿈 그것과도 같게
 연기는 숲을 덮싸며 넓혀 가고
 투명(透明)한 남색(藍色)의 하늘에
 밤의 환영(幻影)은 겁에 질려 돌아가고
 얼어버린 발걸음에 내 꿈은 비를거린다

아카시아 옆면(葉面)에
또는 소름 길 섭에

아아 겨울 날의
슬픈 연기로
사라져버릴 가슴 안고서……

(参考資料 p.15)

(3) <욕구(欲求)>

나의 한탄
하늘과 땅을 뒤흔드는……
어두운 골짜기 그 밑 바위 집에
사람 그림자 없는 숲 그늘에 푸른 호수에
나의 한탄은 흘러서 맺을줄 모르느니
그 불길 스스로를 불태워 버리고
그 입술 꿈에 굶주려
들어키는 것은 — 오로지 젊은 여인의 罪의 입술

(参考資料 p.16)

(4) <葡萄 꽃>

포도 꽃은 하얗니
聖스러운 사랑의 이야기……
무리지운 꽃봉오리 그늘에
들끓는 붉은 피가 넘쳤네.
끝 없는 꿈의 발자취를 그리워하는 마음에선가
그 꽃잎들은 땅에 떨어져 조용히 텅군다.
아아 과수원(果樹園)의 어두침침한 그늘에
덧없는 사랑은 있네, 새하얀 포도 꽃…….

(参考資料 p.18)

(5) <잠든 아기>

고요로히 잠자라, 귀여운 아가의 날에
 검은 밤은 깊이 잠기고 희미한 등불
 또는 綠色 잠옷 위에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평화와 꿈의 반주(伴奏)를……
 아아 고요로히 잠자라 귀여운 아가의 날에
 투명(透明)한 그림자에 찍혀 나온 입술
 가느랗게 새어 나오는 숨소리로 눈은 안온하여라.
 꿈은 덮쳐왔다가 또 사라져 간다네.
 두번 오지않은 幸福과 平和의 날을
 아아 고요로움으로 잠자라, 잠자라, 그대의 날에.

(參考資料 p.19)

(6) <故郷>

어머니의 병환
 지금 약간은
 가벼워졌기는 하지만……
 아아 길 손의 하늘에
 다시 생각 나네 — 고향
 아아 물맑은 大同의 흐름.
 불완전하긴 하지만
 아우의 은근한 글발
 봄날 해질 무렵에
 다시 생각나네 — 고향.

(參考資料 p.19)

(7) <잃어버린 것>

어두운 길을 찾아 간다

환상(幻想)과 고독(孤獨)의 그방에
 쉬지않고 놀리는 손끝
 아아 나는 또 무엇을 걱정합엘가
 무엇을 슬퍼함에 서일까
 생명이 없는 웃음으로 깔아앉힐테야……
 항상 먼곳에 있는 것들이여
 잠시 달리기와 춤을 멈추고
 다시 내 가슴에 눈물의 들끓음을 기두리렴.

(參考資料 p.20)

(8) <낮과 밤의 기도(祈禱)(2)>

무서운 침입(侵入)의 거리
 不可思議의 비밀(秘密)로 넘친 그 절규(絶叫) 소리
 내 마음에 어둠의 밤이 숨어서 온다.
 그리고 그 검은 캡이 마음의 마음을 흐리게 한다.

말할 수 없는 슬픔의 달밤이런가
 잃어버린 銀河가 슬프게 흐느껴 운다면
 구름 위에서 마음 깊은 곳에서 흐느껴 운다면.
 靑銅 녹빛 비가 내린다.

때때로 깔려 쌓여진 마음의 憂愁여
 침전(沈澱)된 月光의 律曲은 달아나 없고
 남 빛으로 된 장님의 비가 넓은 세계를 휘몰아치고 있다.
 그리고 조금 생긴 틈으로부터 生의 큰 파도 그 길고 긴 音律이 돌리는 것 같다.

아아 나의 증오스럽고 또 사랑스런 生!
 험기 위해 축조하고 축조하기 위해 허는 영원한 크나큰 파도

모든 것을 삼키며 물건 모두를 삼켜도 차지않아 狂亂한다.
그리고 더욱 가난한 내 가슴에까지 넘쳐 오느뇨.

오오 피하기 어려운 근심스런 人生을
強한 熱望 위에 다시 살아나게 하라.
우리네의 경종(警鐘)은 어디로 갔나 붉은색 깃발은?
나는 이렇게 외치리라. 「멋는 일 없이 흘러가거라, 부름받고 일어난 意志여」
라고.

들으라 피로에 지친 魂의 所有者—
항상 쉽게 생각하는 겸손함인가, 끊임없이 甘受하는 괴로움인가.
「生活」의 눈물에 비치는 빛이다, 道程이다.
노랗게 변지는 냇가의 물안개같은 마음 마저, 아아 된다, 된다.

격렬(激烈)한 회전(廻轉)이여! 질주(疾走)여 모두 어떻게 되어 가는것일까.
敗한 戰線에 다시 서 본다.
오로지 熱情만이, 우리네의 근심 걱정을 씻을 것이리니,
아아 오직 熱情뿐인 지쳐버린 魂이여! 기다려 보렴.

그래서 모든 것으로부터 도망쳐나오는 것의 貴함이요
비로부터 밤으로부터 맹목의 두려움으로부터 — 그것은 괴상한 理智의 꿈에
불과하다
한결같이 지켜라, 샘을,
철철 넘치는 마음을 길러 잊지말아라.

季節은 바뀔지라도 너의 마음 항상 흔들리고 움직일 때
너희 기도(祈禱)는 이와 같음을 바라나니
「항상 사랑하라. 기뻐하라. 춤춰라, 수용하라, 멋지 말고 흘러라」 고
그렇다면 이상한 큰 파도의 음율(音律)로 永遠토록 무너질 염려가 없게 됨을
위함이니라.

(9) <봄이 오는 날의 노래>

이불 속에서 자그마하게
그리고
슬픈 잠에서 깨어난 후
그 고요로움에 놀란다
걱정스러운듯한 아침의
붉게 비쳐드는 光線을
또 그것의 헤아릴 수 없는 무용(舞踊)을 — 놀란다

浮沈하는 먼지에 섞여
먼 추억(追憶)은 사라져버려
安樂한 숨결이 사라지려 한다
그리고 봄에 온다
매끄러운 피부색
바라보는 빛의 分子에.

눈부심으로 검먹은 눈을 부릅뜨고
우리들은 재빠르게 지나가는 화살을 쫓는다
얇게 물든 하늘에
불룩한 窓유리를 통해서
어린 연심(戀心)을 회미하게 비추고
또 五月 하늘의 아름다운 나래가 퍼득인다.

아아 그러나 우리들은 목표없이 옛날을 쫓는다.
피로에 지쳐 쓸쓸히 남겨진 마음이며
힘없이 한탄을 주고 받으며, 이날의 슬픔을 속삭인다 —
또 빛 속에서 몸을 떨고 있는 젊은 마음이며.

잠시 눈을 감아라
 옅은 비단으로 덮힌 침대에 얼굴을 묻고
 아직도 커가는 젊은 마음의 季節에
 원컨대 평온한 아침의 입맞춤을 주고 받으리.

(參考資料 p.25)

(10) <동트는 아침>

드디어 해가 떴다.
 그래서 草原이
 눈을 돌 정도로 반짝인다
 뿌리채 뽑혀서
 넘어진 나무 잎이
 어느새인가 시들어져 가면서
 그래도 바람과 함께
 춤추고 있다
 그리고 모두가 지붕도, 窓도, 노란 벽까지도 몹시
 즐거워하며
 기분 좋게 인사를 하고 있다.

해는 점점 높이 떠오른다
 모든 일을 잊은 듯이
 참새들이 짹짹 조잘거리기 시작했다
 아래에서는, 밟힌 풀이
 자그마하게 되어 겹을 먹고 있다.
 마르기 시작한 조약돌은
 모두 하얀 半身을 하늘로 향해 — 또는 웃고, 그리고 얘기를 하는 듯
 「우리들 위를 바람은 발이 그저 미끄러졌을 뿐이야」

그러나 숨이 끊어질듯 말듯한 부러진 나무들은
 하얀 상처를 떨면서
 지나간 무서운 暴風을
 아직도 서로 속삭이고 있다.

종(鐘)이 다급한 듯 소리내어 울린다…….

(參考資料 p.27)

(11) <아침>

바람이 간다, 아침을 마중하러
 묘석(墓石) 위에 모래가 춤춘다.
 입을 다문 밤은
 힘껏 발을 버티고
 새로운 모반자(謀叛者)를 억누르려고는 하지만
 오랜 동안의 쇠약이 몸에 스민다
 바람은 中天과 묘지(墓地)로 흩어져 간다,
 날개내린 馬車를 몰기 위해

봄의 中天, 봄의 캄캄한 하늘
 약탈(掠奪)의 구름이 웃는 봄,怒하는 봄
 그 中天에 아침이 찾아오리라…….
 오직 下界에서는 지둔(遲鈍)한 도회(都會)가
 피로에 지친 등불로 밤과 싸우면서
 간신히 가느다란 숨을 잇는다.
 숲은 비추어 드는 박명(薄明)의 광촉(光觸)에 놀라서
 나약한 가슴을 혈떡이며,
 시시각각으로 심해오는 눈부심 때문에
 꿈을 쫓아버리지도 못하고
 텅없이 虛空을 쫓아버리고 있다.

솟아오르기 시작한 간헐천(間歇泉)의 답답한 숨소리가 들린다.
 헉, 헉, 헉하고 핏줄기처럼 솟아 올린다.
 正體를 알 수없는 不可思議한 힘이 땅에 전도(轉導)된다.
 자그마하게 무장(武裝)한 빛의 선구(先驅)는
 아무것도 모르는 地面을 숨죽인 발소리로……
 디딤돌이나 기와조각 틈에
 그림자라는 그림자, 뼈라는 뼈사이로 숨는다.
 괴이(怪異)한 꿈은 더욱 더
 大地의 잠을 끌고 간다.
 그 꿈의 이상함을
 줄음을 청하는 듯 北極星이 지켜보고 있다.

(參考資料 p.27)

(12) <밤, 잠잘 때>

잠들 때가 조용히 온다.
 電燈불빛은 푸르게 빛나고
 酒店 二층에 사람이 모여들기 시작한다.
 이불을 깔면
 떠는 소리, 움직이는 그림자.
 스며드는 차가운 空氣.
 웃고 싶어도 아무도 웃지 않는다.
 그 침침한 잠이
 너무나도 쓸쓸하기에.

폭풍은 거세어져
 거리의 높은 窓으로는
 붉게 上氣된 빛이 떨어서 밖으로 동댕이쳐진다.
 그러나 여기에 안위한 잠은
 제각기 쓸쓸한 마음을 안고 사는 약한 사람들 위에

조용히 덮쳐온다.

때때로窓이 빼걱거려

꿈을 놀라게 한다.

누나와 동생은 이불 속에서

자그만 손과 손을 서로 잡고 — 속삭인다.

「어머니, 오늘밤

바람은 벽의 틈 사이로 스며 들어옵니다……」라고.

어머니는

푸른 덮개로 빛을 가리우면서

조심스럽게

窓문 유리를 바라본다.

때는 지나서

반투명(半透明)한 색으로 가장(假裝)을 한

검은 行列이

월 새 없이 집 주위를 돌아다닌다…….

(參考資料 p.29)

(13) <낮과 밤의 기도(4)>

음울한 겨울로부터

大地의 향연(饗宴)을 한 번에 들끓게 하여

날이 갈수록 불타오르는 개가(凱歌)로서

人間의 머리를 장식하는 苦熱의 太陽이여.

지금에 와서 무엇을 내 앞에 求하려 드느냐.

보라 도취(醺醉)된 가슴은 소리내어, 슬피하며 흐느껴 우느니라.

아아 공포의 세월, 진통의 날이여!

분만(憤滿)과 적막(寂寞)의, 예정지워진 해(年)여!
 빛으로 짓눌려진 살(肉)
 살에 붙어 번지는 憎惡의 불길
 꺼지지 않는 연소(燃燒)의 불길이어.
 게다가 찢기고 할퀴어진 — 빛 앞에서 너무나도 연약한 하나의 영혼
 아아 외로운듯이 견디기 힘겨운듯이
 또 이끌려 가는채 읊조리는 무거운 심장.
 읊울(悵鬱)함,悲痛함, 회복되기 어려운 액병(厄病) 등.
 쓴 눈물은 무엇을 말함인가 —
 太陽이어. 그대의 노여움, 또 그대의 짙은 너무나 強하다.
 그대의 춤은 흐트러지기 일쑤다.
 오오 이 쓸쓸한 날에 그대 기도는 지나치게 기름정지다.

어찌하여 그대의 주연(酒宴)은 그토록 격렬(激烈)함일까……
 그대 色彩는 그토록 복잡(複雜), 그토록 기괴(奇怪)할까……
 아아 그대가 마련한 날은 그다지도 쓸쓸하고 그다지도 불타오름을……
 오오 苦熱의 太陽이어! 그러나 또 그대의 집착(執着)은 어찌하여 그토록 끈질
 '리고 강한 것일까?

들으라. 견디며 기다려라!
 항상 敗하기만하는 나의 심장이여.
 흙투성이의 심장이여
 눈물만이 오로지 하나의 生命을 알리.
 아아 나의 가난한 손가락을 가득히 채워라.
 새 새색시를 맞이하기 위하여
 용감한 미래의 탄생(誕生)의 자리를 祝賀하기 위해.
 원컨대 정성들인 金빛 웃음으로
 이 즐거운 기대(期待)의 時間을 노래부르게 하라.

(參考資料 p.29)

(14) <일모(H幕의 유혹(誘惑))>

구름과 구름을 갈갈이 찢어 — 그리고 이어 붙여서
단단한 벽(壁)을 축조(築造)해 주게나.

그렇지 않으면

쓰고 노오란 일모(H幕)가
나의 투명(透明)한 안구(眼球)에
도적처럼 숨어들어와서 傷處를 입힐 것이리라.

더러워진 눈물을 글썽거리며
만면(滿面)에 眞紅빛으로 물들인 가면(假面)을 쓰고
일모(H幕)의 빛이 소란스럽게 연주(演奏)하고 있다.

.....

빈사(瀕死)의 단말성(斷末聲)…… 이윽고 갑자기 몰아쉬는 呼吸, 그리고 雜音
에 섞인 말못할 외마디 큰 소리. 심장을 갈기갈기 찢는 기적(汽笛)과 같은 피
어……

(그것으로 終末!)

피의 외투(外套)인 일모(H幕)는
미소(微笑)지으면서 우리들을 최면(催眠)에 빠뜨리려고 한다.

이윽고 無數한 마법(魔法)의 손가락이
슬슬 떼내려온다 — 눈 주위로 모여든다.
오오 오오. 저 붉은 유혹으로부터
빨리 이 눈을 데려가 주게나!

(參考資料 p.34)

(15) <탁상(卓上)의 靜物>

자주빛 잉크로부터
무서운 속삭임의 증기(蒸氣)……

외로운 책, 붓, 붓꽃이
 그 사이에 노쇠한 時計가 중얼거리고 있다.
 벼루상자 위에 (졸음이 오는 듯한 네모난 상자)
 숨을 죽여서 겁에 질린 먼지.
 날이 빠진 책갈 — 폭 머리를 드리우고
 무서운 웃음 머금은 表情 —
 까짓, 그런 웃음이 무서울 것인가!
 음, 일모(H暮)의 땅거미가 주변을 감돌 때

 탁자 위는 숲처럼 적막해진다.

(参考資料 p.34)

(16) <女人>

女人이 窓밖을 向해 서 있다.
 눈물같은 夜景.
 粉을 지운 후의 피부 —
 어깨와 목이 反射하는,
 새하얀 曲線!

겨우 그것이라 느껴지게 할 뿐인 볼 — 보아진 않으나 불타는 입술…… 呼
 吸……

(흔들리는 電燈)

노출된 어깨로부터 귀밑까지
 새하얀 曲線! 새하얀 曲線!

그녀가 문득 돌아선다……
 기름진 풍만함. 이제 그만!
 그 하얀 코에

「밤」이 갑자기 웃는다.

(參考資料 p.34)

(17) <오수(午睡) 여인>

푸른 잎새에 아침바람이 눈부시게 스치고

(노래로 밤을 지새운, 지금)

오수(午睡)의 하얀 女人

오오 오수(午睡)의 女人의 건강(健康)함

窈窕처럼 향그럽게

밤톨같은 불은 충일(充溢)하고

콧대로부터 입술로

은은히 풍기는 요염(妖艷)함.

눈꼬리 가는 주름으로 떨어져서

쫓아버려도 쫓아버려도

재빠르게 눈꺼풀을 찌르는 벌(蜂)의 잠……

사랑스런 코는 파도치고

빈틈없는 線의 아름다움.

오수(午睡)의 女人의 건강(健康)함.

바람이 가볍게 어깨를 두드리면

싱싱하게 깨어나는 흑요석(黑曜石)의 눈동자에

사람을 부르는 소리의 상쾌함

또 다시 빠져드는 꿈길의 快感.

흐트러지지 않는 線의 아름다움.

오수(午睡)의 女人의 건강(健康)함.

이럴 때

잠은 춤춘다 — 하아얀 춤

고양이 털같은 하얀 춤을.
화사한 손가락 사이와 보드라운 손수건짓 자락에도.

(參考資料 p.36)

(18) <폭풍 (낮과 밤의 기도(祈禱))(5)>

오오 날이 갈수록 狂亂하는 바람의 무리
무한(無限)한 暴力을 가지고
너는 모든 것을 破壞한다.
너는 잔인한 구름을 몰아서
나의 고뇌(苦惱) 위에 快適한 비를 내리게 한다.
너는 박탈(剝奪)하는 것, 학대(虐待)하는 것.
아아 네 짧은 손톱은 단지
傷廻입지 않은 여자의 하얀 젖무덤을 가혹(苛酷)하게 하는데 소용될 뿐이다.
너는 황폐(荒廢)하게 하는 것. 뿌리채 뽑아버리는 것.
오오 너는 그와같은 불가항력(不可抗力)의 회오리를 가지고
모든 것을 한 울의 실에 하나의 힘으로 휘감아 간다.
오오 지금, 나의 生活을 때려라.
나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의 추한 모습까지 뽑아 버려라.
그렇다. 나는 不可思議하게도 勝利者의 마음으로
산산히 가루로 부서짐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 나는 그 때부터
내 마음의 부드러운 솜씨로 길들여 주리라.
모든 「運命」의 격통(激痛)함도
힘찬 「생」으로의 建設로서 組立할 수 있다.
아아 나는 보기 흉한 溫室의 꽃에
鬭爭의 쓴 맛을 불어넣어 줄 것이다.
나는 나의 트는 식탁(食卓)을
新鮮하고 상쾌한 思想으로 차리는 것이다.
그 위의 모든 食器를 깨끗이 씻어 버리고

젊은 女性의 민감한 官能으로 장식하는 것이다.
 아아 나는 모든 狂氣의 「破壞」를 냉정하게 지켜본다.
 익숙하지 못하나 용감한 나의 意志가
 너의 不可抗力과 一致했을 때
 하나의 호흡이 되어 버렸을 때
 그것이 人間의 勝利다.
 오오 나는 오직 찬미(讚美)하면 될 뿐이다.
 不可思議한 목숨과 운명과.
 거기에 必然的으로 일어나는 鬭爭까지.
 오오 나는 그것 때문에
 내 목이(咽喉)에 鮮血의 선명함을 바친다.
 나는 하나의 울림(響;響)이다. 하나의 관현악(管絃樂)이다. 또 가는 폴피리아
 다.

그리고 모든 熱情과 치밀함을 짜(織)여 있으면서
 영겁(永劫)의 단순(單純)함을 깔고 닦는 저 투명(透明)한 바다의 목소리다.

(參考資料 p.40)

(19) <자화상(自画像)>

연자주빛 풍경(風景)을 가진
 여름이 지난 들녘은,
 새벽이나 맑게 갠 한낮의
 銀빛 웃음에 끌려
 실 처럼 가늘어진 그대 눈
 그런데도 어느날 밤, 그대는
 창으로 비쳐드는 달빛을 받으며
 아무말 없이 울고 있었다. 울고 있었다.

(參考資料 p.40)

(20) <별>

점점 맑게 물들어 번져가는 새벽 노을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에 뜬다해도

무슨 질투를 가질세라. 혼자 빛을 뿜는 새벽 별
눈물겨워지는 일모(日暮)의
사라져 가는 하늘에 걸렸다 해도
어떤 슬픔도 있을 수 없으련. 창백(蒼白)한 내 마음의 별

(參考資料 p.40)

(21) <七月의 밤>

달이 없는窓을 살며시 열어라.
아련히 빛나는 草原을 「밤」이 맨발로 지나갈 때
나뭇잎이 다가와 속삭이는窓을 열어라.
땀에 젖은 七月의 밤이 알몸으로 걸어갈 때.

아아 고요한 「밤」, 연인(戀人)의 머리결을 생각나게 하는 七月의 밤.
그녀의 하얀 두 어깨 위에, 두 개의 「몽환(夢幻)」이 생각에 잠겨.
그녀의 동그만 뒷꿈치에는, 어쩐지 香氣로 가득찬
안개가 엉켜 춤춘다.

아아 「밤」은 알아들을 수 없는 쌍피리를 울리면서 아름다운 樹木 사이로 몸을 前進시킨다.

어디선가 밀려오는 満潮에, 그녀는 머뭇거리고.
단단히 드리워진 흑발(黑髮)에 어둠의 풀, 피어나서.
熱病을 앓는 듯, 달아오른 불. 모든 血管에 피는 가득하여.
파랗게 될 정도로 부풀은 그녀의 肉体 —

아아 또 다시 젖는 살갗, 몰아치는 욕념(欲念), 들끓는 潮水…….
다시 또 불가사의(不可思議)한 발자국 소리. 비쳐드는 미광(微光)…….

아아 「밤」은 알아 들을 수 없는 쌍피리를 울리면서
한결같이 무거운 동경(憧憬)의 몸을 前進시킨다.

아아 유혹으로 넘친 女性의 「밤」

아득히 沈淪되어 건너가는 人氣아래로. 熱情어린 애조(哀調)를 연주(演奏)하는
七月의 밤, 숨막히는 기념(祈念)으로 몸부림치는 「밤」…….

이리하여 지금 비는 樹皮를 씻고, 그녀의 검은 머리와 향그러운 살갗을 씻는
다.

이리하여 지금, 피로는 멎고, 별 없는 하늘에 빛나는 女體의 「밤」은 깊어간
다.

아아 나는 그녀의 고동(鼓動)소리를 들으며, 확실히

나는 느낀다. 그녀의 뜨거운 유방(乳房)이 내 마음을 흔들어 움직임을.

그 熱氣의 떨림이 내 肉身으로 옮겨옴을.

그녀의 민감한 촉수(触手)가 내 촉수(触手)로 스쳐옴을.

그녀의 고통스러운 음성의 그 떨리는 소리와 내 소리의 맞물림을…….

이리하여 지금, 비는 멎고, 별 없는 하늘에.

생각으로 가득찬 맨살의 女人이 앞서간다. 한결같이.

은은하게 냄새로 물드는 아침의 저편으로 — 바다의 저쪽에서.

(參考資料 p.43)

(22) <미광(微光)>

아아 누가 알리? 聖스러운 빛을 가득채운 이 밤 — 회미하게 하늘에 떠있는
동경(憧憬)의 바다에, 소리없이 떠 가는 환상(幻想)의 배를. 또 거기에서 내 마음
無言으로 그 노(權)를 조작함을. 내 가슴은 한량없이 고요롭게 나부껴 어쩔지 모
르게 머뭇거리는 검은 밤을 흔들어 일으킴을. 나의 어린 두 손이 재빠르게 움직
임에 따라서 완만하게 먼곳으로 사라지는 비로오드의 파문(波紋)을. 또 내 머리
위에서 사랑스런 짧은 노래를 들려주는 나의 별을.

나의 배는 간다. 아무도 모르는 변경(邊境)에 나의 狂喜(狂喜)인 땅을 찾아서. 들
으라, 안개 짙은 피안(彼岸)에 가날쁘게 올리는 나의 겁에 질린 기도(祈禱)를. 들
으라 힘찬 주악(奏樂)의 소리를. 간혹 들려오는 흐느껴 우는 소리를. 또 물 밑에
서부터 냄새를 뿜어보내는, 괴롭고도 쾌적(快適)한 정욕(情慾)의 香氣와 不可思
議한 진실(眞實) 위에 꽃피는 나의 감각(感覺)들을.

아아 지금 짙은 냄새의 침묵(沈默)의 그림자에 섞여서, 어디서일까 공포(恐怖)
와 근심스럽고 우울한 목소리가 숨을 죽여 다가온다……. 그러나 내 肉身은 별
들로 가득 — 나는 오로지 나의 빛나는 푸른 태양을 내 스스로의 눈 속에서 찾
으리라. 아아 나의 배가 빠거린다. 즐거운듯이. 지금, 떠오르는 大地의 미광(微
光)에 비친 정지(靜謐)의 시간은 밤을 틈타 내려와 쌓이는 어슴푸레 어두운 수
련(睡蓮)의 화판(花瓣)의 무게에 짓눌려서인가 10월에 내리는 비처럼 가늘게 가
늘게 겹겹이 떨어뜨려 소리없이 내 마음에 넘쳐 내린다. ……오오, 숭고한 無言이
여! 모든 情熱(情熱)을 뛰어넘는 가엾은 창백(蒼白)한 無言의 꽃이여! ……릴리, 릴
리. 어디에서가 벌레우는 소리가 들린다. 아아 나의 배가 빠거거린다…… 마음
깊은 곳에서 기쁜듯이, 기쁜듯이 빠거거린다.

(參考資料 p.47)

(23) <여명>

휘익 흘러들어오는 바람. 형클어져 나부끼는
머리칼, 東터오는 하늘의 산뜻한 香氣.
푸른 잎이 박명(薄明)에 反射된다. — 그 번득임
찰삭 붙은 차가운 돌계단.
느닷없이, 일어서 나가는 여인.
발바닥으로 가을을 밟으며
땀에 젖은 유방(乳房)에 새로운 여명이 스쳐간다.
이슬을 밟으면…… 자릿하게 스며 번지는 戰慄.
냉냉(冷冷)하게 발을 씻는 잔디밭 — 그 상쾌함!
또렷이 떠오르는 옆 얼굴 — 우유빛 하늘에……
가슴가득 들이킨 안개의 자극(刺激).

이윽고 밤은
 즐겁게 빛나는 삶은 옷깃 그늘에 사라지고
 쉼그러운 탄생(誕生)의 부르짖음, 저 건너 하늘에 일어날 때—
 나는 소진되어 가는 여름날의
 어둠이 깔리는 나무그늘 길 옆에 서서
 그녀의 부드럽고 차가운 입술과
 솟아오르는 샘물을 닮은 검은 머리칼의 감촉들을
 숨막히는 熱氣를 목덜미에 느끼고 즐겨워한다…….

(參考資料 p.47)

(24) <암흑>

겨울이다. 바람에 씻긴 상흔(傷痕)이 아프게 얼어붙는 겨울이다.
 폭풍이 우리를 뒤틀어 넘어뜨리고,
 햇별이 칼날 위에 괴로운 빛을 더한다.
 잔혹(殘酷)한 수성(獸性)의 소리가 무수한 칼날을 세우고 있다.
 빛나는 대지(大地) 넘치는 수목(樹木) 위에
 오오 폐쇄(閉鎖)된 출입문(出入門), 웅 기침소리 겹겹거리는 반향(反響)
 꿈틀거리는 영(靈), 추위(寒冷), 피(血)
 너를 낳은 태(胎)를 저주하라!
 겨울이다. 애써 은폐할 수 없는 겨울이다.
 햇불의 불이 피에 굶주린 짐승과 같이 불탄다.
 그리고 또 밤. 괴상한 밤의 그림자.
 기분나쁜 현월(弦月)이, 일그러진 산길의 고목(古木)의
 보기추한 뿌리를 밤동안 비추고 있으면,
 산비탈에 잠든 눈은 여느 때와는 달리 더러워져
 영 영 걱정애 잠긴 부르짖음이
 웅달진 밑을 침식한 두뇌(頭腦)의 밑을 따라서 간다.
 겁먹은 절규. 우리들은 기다리고 있다. 문(門)이 열리는 것을.

우리들은 기다리고 있다. 암야(闇夜)와 폭풍(暴風)을 지나
 우리들은 기다리고 있다. 기적과 같이 갑자기.
 오오 우리들은 기다리고 있다. 두렵고도 긴 동안을 기다리고 있다.
 눈부신 아침의 문이 열려지는 것을.)
 더러워진 피부 위로 파고드는 차가운 바람. 땀도는 비. 소란스런 냇물.
 씩스레한 모든 꿈 그 정처없는 그림자 아래, 비웃는 웃음소리가 일어난다.
 오오, 그 소리— 어느 때인가의 몹시 추운 밤, 캄캄한 하늘에 겁먹고,
 끼익 끼익 소리를 내는 것은 창(窓)들의 아픔인가.
 흐린 날씨 무서울 만큼 텅 비어있는 정원(庭園), 억누르는 흑운(黑雲),
 술술한 골짜기에서 흘러들어온 자주빛 공기,
 어딘지 모르게 차가움이 구석진 곳에,
 때때로 움직이는 사람 그림자. —숨을 죽여서 눈이 내린다.
 똑, 똑 한방울 비가 섞여서 내린다. 눈물이 섞여 눈이 내린다.
 이미 출입문(出入門)은 사라졌다. 가을의 일모(H暮),
 바스락 바스락 마른 나뭇잎에 붙던 씩스레한 바람이 시신경(視神經)을 피로하게
 한다.

암흑(闇黑)이 무너진다.

(살갓에 스며드는 이끼와 시체의 냄새)

오오 통절(痛切)한 암흑(闇黑)!(오로지 환영(幻影)만이 진실(眞實)이다!)

—그것은 끝없는 평행선(平行線)의 저쪽.

공허(空虛)의 칼날이 울려 퍼지는 저쪽—

일모(H暮)에 흐느끼는 장엄(莊嚴)한 도시(都市).

아직 사람들의 발길로 다져지지 않은 황탄(荒誕)한 금빛 가도(街道)—(너는 믿
 지 않는 것인가?)

겨울이다! 겨울이다! 운명(運命)지워진 때다.

유혈(流血)과 비참한 날이 우리들의 호흡을 막아버리는 겨울이다.

(우리들은 기다리고 있다. 출입문(出入門)이 열려지는 것을)

오오 환상(幻想)은 사라진 것이다. 저주받은 백성! 그런데도 더욱—.

(우리들은 기다리고 있다. 아름다운 담청(淡靑)의 새벽을, 우리들은 기다리고
 있다. 기다리고 있다. 기다리고 있다—.)

(參考資料 p.51)

(25) 식탁(食卓)

꽃 한송이 꽃혀있지 않은 살풍경한 테이블
 조용히 숨죽인 검은 곡선(曲線)만이
 설백(雪白)의 테이블 크로스에 떠 있다.
 그러나 금속성(金屬性)의 소리가 나는 자기(磁器)접시 위에는
 살짝 스쳐가는 손끝에도 무너질 듯한
 사람의 운명처럼 진황색(真黃色) 크림을 담읍시다.
 그리고 열린 창문(窓門)의 밝은 쪽으로
 푸른 잎의 바람 냄새가 나는 경치(景觀) 속으로 내어 놓자네.
 아니 또 거기에
 조개껍질의 얇음, 견고(堅固)함, 순백(純白)함, 은은한
 그림자가 가장자리에 감도는 나무 숟가락을 곁들여야 한다.

그리고 나는 홀가분하게 잠자리를 벗어나
 이 아름다운 검은 곡선(曲線)과 접시와 크림과,
 그리고 또, 이토록 하얀 나무 숟가락에
 잘 어울리는 한 소녀를 찾아 나서자네.
 아아 그때, 연인이여 그대의 사랑이 이
 불가사의(不可思議)한 화면(画面)을 완성(完成)시킬 때까지
 나를 남겨둘 것이리라 — 나의 공상(空想)을
 스치면 소리나는, 그러한 미묘(微妙)한 선(線)인 채로.

(參考資料 p.56)

(26) 월광(月光)

검고 차가운 대리석(大理石)의 밤.
 현무암(玄武岩)의 매끄러운 단면(断面)의 밤.
 그리고 남을 짝은 것 같은 달빛이

하얀 바람을 타고 미끄러지고,
 중유(重油)처럼 미끄러져,
 인간(人間)의 줄리는 머리 속으로
 한순간의 입맞춤 속으로—.

그리고 얼어붙은 흑백합(黑白合)의 입술로부터
 줄리는 깃털이 눈처럼 내려 깔린다.
 수은(水銀)의 꽃이 눈처럼 깔린다.
 그리고 죽음같이 침묵하는 밤은
 살아있다.

(參考資料 p.56)

(27) 안개와 태양

아름다운 것은 삼베무늬의 소박함
 모든 가면과 허식의 무리
 초원(草原)과 강가의 갈대 사이에서 찢어버린
 모든 가면과 허식의 무리
 마음은 미소 짓는다. 그 쓸쓸한 그늘에 숨어서

x

불꽃은 손바닥에서 생겨난다.
 불꽃은 손바닥에서 피어오른다.
 백열(白熱)의 계절
 새로운 불의 냄새
 무겁고 투명한 호수(湖水), 타들어가는 쇠납
 밝은 자연의 충동으로부터
 너의 눈동자로부터, 이마로부터
 화염(焰)과 불꽃과 힘과 욕념(欲念)으로
 고향을 치며 나를 감싸게 하라. 또 나에게 충만(充滿)시켜라.
 힘이 더 해가는 「경이(驚異)」 위에 그 이마를 감싸는 어린아이같이

X

색채는 음향을 낳는다.
가슴의 권태를 빨아들이는 정욕(情慾)의 전율(戰慄)에
발가벗은 육체(肉体)는 계시(啓示)에 빛난다.
아! 건강(健康)
참기 어려운 고통(苦痛)으로부터 용솟음치는 붉은 피는,
꽃피는 음향(音響)은
마음을 씻어 주고,
마녀(魔女)의 손끝에 색채(色彩)는 음향(音響)이 된다!

X

벌써 피리소리에 깨어나는 푸른 보석
밤은 붉은 핏빛의 아침으로 춤추며 나오고
물고기의 마음은 숲과 도시의 위를 달려
마셔버린 고열(苦熱)의 두터움, 정적
주어라 나에게
질풍(疾風)과 같은 빠름과 쇠와 같은 마음을 가진 촉수(触手)를
아! 깨어나는 푸른 보석(寶石)
낮은 밤앞에 붉게 물들면서—.

(參考資料 p.63)